

# 이재명 20%대 박스권·이낙연 10%대 탈출 총력

민주 1·2위 대선주자 지지율 고심  
이재명, 중도 확장력 키우기 행보  
정책·이슈 등 실용주의적 접근  
이낙연, 숨겨진 개혁성 부각 집중  
“곧 변곡점...호남지역 경선서 승기”

민주당이 이날 말부터 지역별 순회경선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의 대선 주자군 가운데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미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두고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우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황교익 사태 및 맥방 논란’이라는 대형 약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주보다 0.6% 포인트 오른 26.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1~22일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에서 이 지사는 27.7%를 기록, 한 달 전보다 3.9% 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공정이 테일러인 의뢰로 지난 20~21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26.9%로 전주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일주일 동안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이전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맥방 논란 등 ‘지사 리스크’ 관련 돌출 변수 이어졌음에도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지사가 흔들림 없는 25%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지사의 지지율이 20% 후반대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은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된다. 이 지사가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 확장성에서 일정 정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론 지지층이 마땅한 대안을 차지 못한 가운데 이 지사가 2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냉정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정치적 폭발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 듯, 최근 이 지사는 중도 확장력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이슈나 정책 등에서 차별화된 실용주의적 접근에 나서면서 점차 대세론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 핵심 지지층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톤 조절’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주의’를 제대로 한 통일·외교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를 중심으로 민생 중심의 실용적 정책을 연속적으로 선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도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막바지 스피트를 내고 있다. 제3차에 있는 친문 의원들과 온라인 토론을 벌이는 동시에 언론중재법, 검찰개혁 등 휘발성 강한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며 ‘숨겨진 개혁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 강화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과의 차별화에도 나서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처럼 10%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심 중이다. 캠프 내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만간 과감한 정책 및 이슈 파이팅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순회 경선 이전에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을 10% 후반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이날 말까지 지지율 반전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지역별 순회 경선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진영의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의 황교익 사태 및 맥방 논란으로 다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반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3차 변곡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경선에서 승기를 잡고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진영에서는 오는 31일 시작되는 첫 경선(대전·충남) 투표결과가 초반 판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총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명 안팎의 캠프 소속 의원들이 대전·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5명 탈당 요구·1명 제명

### “6명은 소명 충분”...징계 제외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기훈·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5명에 대한 탈당요구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권유’와 다르다. 탈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탈당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명 대상에 올린 한 의원과 탈당을 요구한 5명의 의원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발견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최고위는 이들을 상대로 일일이 소명을 들은 결과 나머지 6명은 당 차원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

명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에 대해서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받은 의원 중 3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회)에 몸담아왔다.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캠프 직책에서 물러났다”며 “이 의원은 소명 절차를 지켜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안병길 의원은 캠프의 홍보본부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된 12명 중 8명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탈당요구를 받은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은 당사자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문 대통령, 오늘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방한은 올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해 성사됐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에

서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민”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 외에도 공식 환영식,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민만찬 등에 함께 참석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 청년특별대책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

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와의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방침을 거론,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

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고운 CITY*i*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상시모집)**

구분	모집(전공)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지	비고
신입·경력	건축직(공무, 공사)	○명	신입 및 경력 •신입 : 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졸업예정자 포함) •경력 : 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건축(공동주택 경력자 우대)	본사 및 현장	정규직
	토목직(공무, 공사)	○명			
	조경직(공무, 공사)	○명			
	안전관리직(본사, 현장)	○명			
	전기, 소방	○명			
	기계설비	○명			
	주택사업	○명			
분양사업	○명	•신입 : 학력무관 •경력 : 공동주택 A/S, C/S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 2차 : 면접(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 령 서 : 사진, 우측상단엔 응시분야 기재, 희망연봉 및 긴급연락처 명기
-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위주로)
- 기술인합회 발행경력증명서
-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
- 접수방법 : E-mail 접수(gowoon205@nate.com)
- 전 화 : 062-225-930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당사규정 및 실무 경력에 따라 협의